

◆**머느리권씨 열전 29-2**

기정진(蘆沙 奇正鎭)의 어머니, 권씨 (추밀공파 요계 29세, 권덕언의 딸)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1798~1879)과 서첩, 위정척사비 시제작

‘장안만목(長安萬目)이 불여장성일목 (不如長城一目)’

어느 설화에서는 청나라 사신이 조선의 인물을 시험하기 위해 난해한 글귀를 보내고, 조정이 이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그때 장성의 한 아이, 어린 기정진이 등장한다. 그는 천연두로 인해 한쪽 눈을 잃었지만, 그 결핍이 오히려 더 깊은 통찰로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그가 남긴 답은 기이하면서도 명쾌했다. “동해의 물고기”를 비유로 들며 머리와 꼬리, 뼈를 지워가는 방식의 언어 유희 속에서 핵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는 하나의 상징적 문장이 따라 붙는다.

“장안의 만 개의 눈보다 장성의 한 눈이 더 밝다.” 이 말은 곧 기정진의 이름과 함께 전해지며, 단순한 신동의 일화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중심의 다수보다 변방의 통찰이 더 깊을 수 있다는 역전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그의 삶과 설화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이어진다. 하나는 장성의 산과 서원에 남은 실제의 흔적이고, 다른 하나는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의 이야기이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시험하려는 뜻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를 보내왔는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고산의 마루에 서면, 보이는 것은 산이지만 느껴지는 것은 한 인물의 긴 사유의 시간이다. 이른바 ‘장안만목 불여장성일목(長安萬目 不如長城一目)’이라 불리는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조정에 전해진 하나의 난해한 문장이다.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시험하려는 뜻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귀를 보내왔는데, 그 문장은 다음과 같다고 전해진다.

“용은 짧고 호랑이는 길며, 오정(午徑) 길 아래 석양이 붉다.”(龍短虎長，午徑路下夕陽紅)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시구처럼 보이지만,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종의 언어 수수께끼였다. 조정의 대신들이 여러 날을 두고 의논하였으나 끝내 그 뜻을 풀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때 사람들은 장성 지역에 어린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훗날의 기정진였다.

조정의 요청으로 불려온 그는 문제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 속에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는 단순한 문자 풀이가 아니라, 글자의 구조와 의미를 분해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는 “동해에 물고기가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등뼈도 없다”는 비유를 들며, 한자의 구조적 해체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풀이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언어 해석을 넘어, 형상과 본질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고가 강조되었다.

또한 “9월 산속의 불이 푸르다”는 표현은 계절의 역전 이미지를 통해 기존 질서의 뒤집힘과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의 답을 들은 이들은 크게 감탄하였고, 이후 “장안의 만 개의 눈보다 장성의 한 눈이 더 낫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이것이 곧 ‘장안만목 불여장성일목’이라는 표현으로 굳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 이후 기정진은 ‘일목문장(一目文章)’이라는 별칭과 함께, 신체적 결핍조차 오히려 지혜의 상징으로 재해석되는 인물로 기억되었다. 그는 호남

유학의 큰 흐름 속에서 학문과 사상을 발전시키며 성장해 갔다.

이 설화는 결국 외형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중심보다 변방에서 나온 시선이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역설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행주기씨 그리고 기정진
행주 기씨(幸州奇氏),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무언가 낯설고도 오래된 향기를 맡은 듯하다. ‘기(奇)’라는 성씨는 참으로 드물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이할 ‘기(奇)’자를 쓰는 행주 기씨는 겨우 27,379명에 불과하다. ‘기(箕)’자를 쓰는 행주 기씨와는 별개의 뿌리라고 하니, 그 희소성이 더욱 돋보인다.

이 성씨의 시조는 기우성(奇友誠)이다. 백제 온조왕 때 시중을 지낸 인물로, 지금의 경기도 고양시 행주동을 관향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마한의 유민이 온조왕에 의해 한산 북쪽 행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행주산성 안에는 ‘기가 바위’라 불리는 기가(奇野) 바위와 기감천(奇甘泉)이 전해 내려오는데, 기씨 조상들이 이곳에서 태어나 달고 맛있는 샘물을 마시며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흥미로운 것은 문헌상의 1세조가 기우성이 아닌 기순우(奇純祐)라는 점이다. 기순우는 고려 인종 때 문하평장사를 지낸 인물로, 기우성으로부터 66세손이라고 전해진다. 그런데 한때 선대의 족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기순우를 1세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후에 잃어버렸던 고세계본이 기윤현의 둘째 아들 정 의 집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실전되었던 66세대의 행적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가보를 찾아낸 듯한 감동을 준다.

기씨 가문은 고려 중엽 이후 무공을 세우며 번성하기 시작했다. 기순우의 손자 대에서 거란의 침입을 막는 등 무공을 떨쳤고, 그 영화는 기황후 시대에 절정에 달했다. 기황후는 기자오의 막내딸로, 16세에 원나라 순제의 궁녀로 들어가 22세에 태자를 낳고 제2황후에 책봉되었다. 그녀는 궁녀 제도를 없애고 고려를 원나라의 지방으로 만들려는 논의를 무마시켜, 부마국으로서 고려의 이름과 국가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권력의 그림자는 언제나 화를 불러오는 법. 1356년, 공민왕에 의해 그녀의 오빠 기철이 숙청되면서 기씨 가문은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씨 가문을 다시 일으킨 이는 기건(奇虔)이었다. 그는 세종의 발탁으로 관직에 올랐으나, 단종 복위 문제와 관련하여 세조의 출사 요청을 다섯 번이나 거절한 충신으로 유명하다. 그의 후손 중 기준은 조광조와 함께 도덕정치를 추구하다 기묘사화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가장 빛나는 별 두 분이 탄생하였으니, 바로 기대승과 기정진이다. 기대승은 퇴계 이황과 ‘사단칠정론’ 논쟁을 벌인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성리학자이고, 기정진은 조선 말기 주리설을 주창한 성리학의 대가이다. 또한 한말 의병장 기삼연은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처형된 애국지사였으며, 현대에는 법조인 기세훈과 축구선수 기성용이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정진(奇正鎭)의 계보
기정진의 선대를 따라가다 보면, 한국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펼쳐진다.

그 첫 출발은 기순우(奇純祐)이다. 고려 인종 때 문하평장사를 지낸 그가 행주 기씨의 1세조로 여겨진다.

고려 후기로 내려가면 기자오(奇子敖)를 만난다. 그는 무관으로, 자신의 딸이 원나라 황후가 되면서 원나라로부터 경왕에 봉해진 인물이다. 그의 딸이 바로 그 유명한 기황후이며, 아들 기철은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공민왕에게 숙청되었다. 여말선조, 기건(奇虔, 1390~1460)이 등장한다. 그는 행주 기씨의 중흥조로 불린다. 세종의 발탁으로 벼슬에 올랐으나, 세조의 등극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그의 묘소는 지금도 기씨 문중의 도선산(都先山)으로 삼아 해마다 제사를 올리고 있다고 하니, 후손들의 공경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말기, 마침내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나타난다. 기대승 이후 약 250년 만에 배출된 또 다른 거유이다. 호는 노사(蘆沙),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그는 전래의 주기설을 반대하고 주리설을 주창하여 서경덕, 이황, 이이, 이진상, 임성주와 함께 조선 성리학의 6대가로 불린다. 그가 죽자 면암 최익현이 그의 신도비문을 지었으니, 그 당대의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정진과 기대승이 같은 혈통이지만 직계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정진 또한 기건의 후손이지만, 기건 → 기준 → 기대승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학맥과는 다른 가지에서 갈라져 나왔다. 하나의 뿌리에서 두 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셈이다.

행주 기씨의 역사를 따라가노라면, 한 가문의 흥망성쇠가 곧 한국사의 축소판처럼 느껴진다. 백제의 시종에서 시작하여 고려의 기황후로 번성하고, 조선의 사화를 겪으며 시련을 맞고, 다시 성리학의 대가들을 배출하며 빛을 발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의병장을 내었고, 현대에는 법조인과 운동 선수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기정진은 그 긴 여정의 마지막에 선 거유였다. 그는 주리설을 주창하며 조선 성리학의 정수를 집대성했고, 면암 최익현 같은 후학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의 학문과 사상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음을 생각하면, 한 가문의 역사가 단순한 혈통의 기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행주 기씨, 그리고 기정진.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산서원(孤山書院) 장성군 진원면 고산리 소재 출처 N뉴스

기정진의 사상

조선 후기의 대학자 기정진은 19세기 성리학의 마지막 거목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호남 유학을 대표하는 독자적 사상 체계를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학문은 단순한 이론 체계를 넘어 시대의 위기 속에서 현실과 맞닿아 움직이는 특징을 지닌다.

그의 핵심 사상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理)’가 주재한다는 이주론(理主論)으로 정리된다. 그는 세상의 모든 변화와 질서가 물질적 기(氣)의 작용보다 이치(理)의 근본 원리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성리학 체계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사유는 기존 성리학 논쟁 속에서도 강한 독자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추상적 이론에 머물지 않았다. 1866년 병인양요가 발생하자 그는 국가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병인소(丙寅疏)’를 올려, 외세의 침입에 맞서는 국방 강화와 자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학자의 의견을 넘어 현실 정치와 국가 방위를 향한 적극적 참여였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무장 권씨 열전 ①-권희달**(權希達, 추밀공파 18世)

조선 개국 공신이자 ‘조선골통(骨痛) 2인자’

태종의 충신인가, 조선 최고의 문제적 무장인가

조선 초기 권력의 격변기에는 수많은 공신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권희달(權希達, ?~1434)만큼 극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폭행과 무례를 일삼아 조정의 골칫거리가 되었던 인물이다.

공신의 영광과 망나니 같은 행실이 한 몸에 공존했던 사람. 조선 왕조가 필요로 했던 최고의 무장인 동시에 조선 사회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거친 인물, 바로 안동권씨 추밀공파 18세 손 권희달이다.

권희달은 태종 이방원의 최측근 무장으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결정적인 공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끝없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역사 속 권희달은 “충신인가, 문제적 무장인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고려 무신 가문의 후예, 권희달의 출신
권희달은 고려 말 명문 무신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권용(權鏞), 부친은 권정주(權定柱)이다.

세대	인물	주요 이력
16세	권용(權鏞)	현성군(玄城君), 종대광 보문각 제학 역임
17세	권정주(權定柱)	충청도 병마절도사, 보사원종공신
18세	권희달(權希達)	정사공신, 위력공(威戾公)

조부 권용은 고려 말 문서와 글씨에 능했던 인물로 현성군에 봉해졌다. 1991년 발굴된 창화공 도벽 기록에서도 권희달 가문이 무신 계열의 전통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권희달은 고려 말 혼란과 조선 건국이라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초기 행적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그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이었다.

이방원의 운명을 바꾼 무장,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정종 2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이방원과 그의 형 이방간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바로 제2차 왕자의 난이다. 당시 권희달은 이방원의 편에서 최전선에 나섰다. 그는 패배하여 도망가던 이방간을 추격했다. 그러나 권희달은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두려워하는 이방간에게 “공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킨 뒤, 그를 보호하여 작은 말에 태워 안전하게 호송했다.

이 장면은 권희달이라는 인물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그는 전장에서서는 냉혹한 무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인의 의리와 예를 중시하는 면도 지니고 있었다.

이 공로로 그는 태종 이방원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정사공신으로 책봉되었다.

태종이 중용한 조선 군권의 핵심 인물
왕위에 오른 태종은 권희달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는 대호군(大護軍), 상호군(上護軍), 순금사 판사(巡禁司判事), 순금제조(巡禁提調) 등을 역임하며 조선 초기 군권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다.

연도	내용
1403년	대호군·상호군 임명
1405년	순금사·판사 임명
1409년	순금제조 임명
이후	총제(總制)급 무관 활동

태종에게 권희달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다. 왕자의 난 당시 생사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였다. 그러나 그의 거친 성격은 곧 조정의 문제가 되었다.

공신의 얼굴 뒤에 숨은 폭력성
권희달은 뛰어난 무예와 강한 충성심을 지녔지만, 성격이 과격하고 쉽게 분노하는 인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폭력과 무례한

행동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
무관 폭행 사건
1400년 권희달은 왕의 행차 중 갑옷과 병기를 갖춘 상태에서 헌사의 서리를 구타했다. 공신으로 승진한 직후였지만, 그의 거친 행동은 계속 문제가 되었다.

사관을 모욕한 사건
1409년에는 사헌부 서리를 폭행하였다. 그는 사관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유자(儒者)가 무관(武官)을 멸시한지 오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다. 조선 초기 문관 중심 정치와 무관 세력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골이치 않은 탄핵
권희달은 여성 관련 사건과 폭행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탄핵을 받았다. 대간은 그의 죄를 열거하며 엄벌을 요구했지만, 태종은 과거 왕자의 난에서 세운 공을 생각해 번번이 그를 보호했다. 권희달의 가장 큰 실책은 명나라 사행에서 발생했다. 세종 5년(1423년),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었다. 당시 조선과 명나라 관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권희달은 북경 회동관(會同館)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조선이 명나라에 바친 말을 두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본국에서 진한한 별마(別馬)는 똥을 싣고 다니던 말이다.”

또한 공식 연회 자리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종사관을 매질하는 등 외교 사신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세종은 크게 탄식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 내가 사람을 잘못 알고 보았음을 후회한다.” 태종은 왜 권희달을 버리지 않았나.



명나라 사신가서 난리치는 권희달 사신 시 재구성

실록 내용
상호군(上護軍) 권희달(權希達)을 파면시켰다. 처음에 권희달이 총제(摠制) 이밀(李密)과 더불어 바둑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의 결에서 무례하게 구니, 조영무가 노하여 이밀의 종리(從吏)를 가두고, 권희달에게 배 1백 백을 징수하였다. 권희달이 심히 분하게 여겨, 조영무와 더불어 족세(族勢)를 논하면서 크게 힐난(詰難)하다가, 그 관대(官幣)를 풀어 조영무 앞에 던지고, 또 승추부(承樞府)에 들어가 악언(惡言)을 하였다. 승추부에서 상소(上疏)하여 죄를 청하니, 임금이 권희달을 순금사(巡禁司)에 3일 동안 가두고 그 직임을 파면시켰다. 권희달은 성질과 행실이 추악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싫어하였다. 다만 폭심[膂力]이 있고, 시위(侍衛)에 부지런하였던 까닭으로, 임금이 대방우대하여 용서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권희달은 그 행실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권희달에 대한 대간의 비판은 거셌다. 헌사는 상소에서 그의 죄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지적했다. 왕명을 따르지 않은 죄, 개국 공신을 힐문은 죄, 왕실 인척을 업신여긴 죄, 사관을 모욕한 죄, 국법을 반복하여 어긴 죄 등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감정의 변화와 신체의 활동 리듬에 따라 늘 일정하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수(長壽) 거북이는 호흡의 속도가 인간의 1/4 정도로 느리게 한다는 사실이다. 바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다지 바쁘지. 어린아이들이 더 바쁘다. 학교에서 집에 오면, 바로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는 학원(대충 4~5개는 죽히 다녀야 한다)으로… 이 때부터 도대체 숨 쉴 틈 없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좀 더 느리게 가보자. 그래야 진정한 삶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진부하고 무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명은 영원 한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 표현한다. 극락과 지옥, 천당과 지옥, 천당, 연옥, 지옥 등으로…

생명에 대하여 의학 등 과학에서는 가시적 범주 내에서 결론을 내리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명존중이나 본질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다는 것이다. 생명 실상은 가시적 물질세계에서는 결코 답을 얻을 수가 없다.

사후 세계나 영혼 등에 관해서는 이제 곧 알려져 일상에서 경험하는 평범한 지식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생명은 의식이며 육체는 생명의 진화와 성숙을 위한 수단으로 잠시 사용되는 것이다. 생명은 영원함으로 육체의 죽음 후에도 계속된다. 단 사후의 삶의 질은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성숙도를 반영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말하는 심판, 천국, 연옥,

지옥이나 하는 말로 표현한다. 사후의 세계는 다차원의 세계이다. 기독교의 개신교는 세상, 천국, 지옥 3차원을 말하고, 구교인 천주교는 연옥을 더 하여 4차원을 말한다. 이처럼 영혼불멸이나 천국 등 사후세계는 여러 종교나 문화의 보편적인 믿음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일 뿐 분명한 증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말지 않아서 영혼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지식이 될 것이다.

인류의 정신 세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아울러 율리의식이나 생명존중 사상이 비로소 발현될 것이다.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앞당겨 자신들의 일상에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세계는 삶의 성숙도를 반영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